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강 | 역사, 지리산 삐죽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배운 (가)와 (나)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잘 왔어. (가)와 (나)는 둘 다 자연을 소재로 했지만, **주제와 표현 방식**이 조금 달랐지? 먼저 (가) 지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 (가)는 어떤 시였지?



(가)는 달래꽃을 소재로 한 시였어요. 달래꽃의 소박함과 생명력을 예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가)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송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시야**. 특히, 1연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부분에서 **작은 존재가 지닌 위대한 힘을 강조하고 있지**.



2연에서는 ‘바윗돌처럼 끽끔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의 역사와 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2연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달래꽃의 생명력을 찬양하는 부분**이야. ‘바윗돌처럼 끽끔 얼어붙었던 대지’는 **시련과 고통의 상징**이고, 이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은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지. ‘푸른 수의’를 벗고 싶다는 표현 역시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달래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3연에서는 ‘너’라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강 | 역사, 지리산 삿갓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고르는 **햇볕**(저력을 지닌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①)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저력을 지닌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②)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저력을 지닌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③. **민중을 의미하는 자연물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렵פות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민중의 저력)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

▶ 1연: 하잘것없지만 멀하지 않는 달래꽃

2

바윗돌처럼 **공공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부정적 현실에서의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고난을 이겨 온 민중의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민중의 저력)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억압의 형상화. **'수의(囚衣)'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2연: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연대·화합하는 민중의 모습),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겉으로 드러난 화자) 꼬옥 짚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촉각적 심상을 통한 긍정적 인식)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비유를 통한 긍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의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반복을 통한 화자의 의지와 당위성을 강조)

▶ 3연: 연대와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달래꽃

- 「역사」

핵심 정리

(가)

■ 갈래: 자유시, 산문시

■ 성격: 의지적, 예찬적

■ 주제: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 구성

■ 1연: 생명과 삶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회의

■ 2연: 극한적 공간인 사막에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화자

■ 3연: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한 화자의 비장한 의지

■ 특징

■ 달래꽃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온 민중들의 저력을 표현함.

■ 독자에게 민중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하잘것없는 송이의 달래꽃을 보며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6강 | 역사, 지리산 뼈꼭새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렵פות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꿩꿩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칠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역사」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뼈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뼈꼭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下)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뼈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뼈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中)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뼈꼭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지리산 뼈꼭새」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통해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자연물에 투영된 삶의 의지를, (나)는 자연 현상에 내재된 순환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2.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체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⑤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고 화자의 고조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 (나)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정서적 심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추보식 구성을 활용하여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공감을 유도하고 사색을 촉진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이미지를 병치하여 현실의 갈등을 부각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4. (나)의 **삐죽새 울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 ②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소멸되는 존재의 비애를 상징한다.
- ③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외부 세계로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④ 강렬한 생명력을 통해 서러운 감정을 정화하는 긍정적 힘을 지향한다.
- ⑤ 여러 봉우리를 넘나드는 역동성을 통해 슬픔의 확산과 파급력을 보여준다.

5. (가)의 화자가 달래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덧없는 삶의 무상함을 극복하는 초월적 깨달음
- ② 고된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간적인 위안과 평화
- ③ 영원히 지속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 ④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의 승고한 의지 확인
- ⑤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얻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충만한 기쁨

6.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삐죽새 울음의 반복과 확산을 통해 애절한 정서를 심화하는군.
- ② 섬진강의 힘찬 물줄기 묘사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③ 삐죽새 울음이 철쭉꽃을 태우는 이미지에서 강렬한 슬픔의 여운을 느끼게 하는군.
- ④ 지리산 봉우리에서 강으로, 꽃밭으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이 슬픔의 변주를 보여주는군.
- ⑤ 한 마리 삐죽새 울음이 여러 마리로, 다시 침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삶의 순환적 질서를 깨닫게 하는군.

8. (나)의 2연과 3연을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연은 구체적인 지명을, 3연은 추상적인 공간 배경을 제시하여 공간의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은 뻘뻘새 울음의 확산 과정을, 3연은 뻘뻘새 울음의 소멸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③ 2연은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3연은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묘사하여 감각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④ 2연은 뻘뻘새 울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3연은 산봉우리의 정적인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2연과 3연 모두, 뻘뻘새 울음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공간적 확장과 그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렵פות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끽끔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칠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역사」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뻘뻘새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뻘뻘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下)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뻘뻘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뻘뻘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中)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뻘뻘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지리산 뼈꼭새」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조화를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10. [A]에 담긴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경계
- ② 덧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연민
- ③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한 자조적 한탄
- ④ 숭고한 대상에 대한 존경과 찬양의 옹호
- 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체념적 절망

11. [B]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것은?

- ① 갈등과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하는 경쟁자
- ②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
- ③ 애정과 집착 사이에서 번뇌하는 소유의 대상
- ④ 동경과 질투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선망의 존재
- 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고독을 심화하는 방관자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가)는 달래꽃이라는 미약한 존재를 통해 끈질긴 생명력과 역사의 힘을 예찬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등의 구절에서 강렬한 삶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뻘쭙새 울음이 지리산 봉우리에서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뻘쭙새 울음은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 연에서 철쭙꽃밭을 태우는 강렬한 빛깔로 남는다는 점에서 소멸이 아닌 순환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 산봉우리’에서 ‘섬진강’, ‘철쭙꽃밭’으로 이어지는 시적 공간의 이동과 변화는 이러한 순환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① (가)는 주로 시각적 심상(달래꽃, 햇별, 바람, 벌나비 등)과 촉각적 심상(“보드라운 바람”, “뜨거운 핏줄”,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각적 심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반면 (나)는 ‘뻘쭙기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등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울음소리가 산봉우리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출한다.

② (나)는 ‘뻘쭙새 울음’, ‘산봉우리’, ‘섬진강’, ‘철쭙꽃밭’ 등 다양한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슬픔의 정서가 순환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가) 또한 ‘달래꽃’, ‘햇별’, ‘바람’, ‘벌나비’, ‘뜨거운 심장’, ‘눈망울’, ‘핏줄’, ‘손’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달래꽃의 생명력과 사랑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가)는 달래꽃의 생명력과 역사를 예찬하며 경외감을 드러내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나)는 뻘쭙새 울음과 자연 현상을 통해 슬픔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으며, 경외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경우, 자연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자연 현상에 투영된 인간의 정서와 삶의 이치를

탐구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④ (가)는 ‘달래꽃’, ‘햇별’, ‘바람’, ‘벌나비’ 등 작고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소생하는 생명력과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뻘쭙새’, ‘산봉우리’, ‘강’, ‘철쭙꽃’ 등 웅장하고 변화하는 자연물을 통해 슬픔의 정서가 순환하고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활용된 자연물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답 ④

(가)는 전체적으로 독백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정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3연에서 ‘너’라는 청자가 등장하지만, 이는 특정한 대화 상대라기보다는 화자의 사랑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장 전체의 흐름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독백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며, 대화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가)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달래꽃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바윗돌처럼 끽끔 얼어붙었던 대지”,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푸른 수의(囚衣)”, “샘처럼 원통 괴어 있는 눈망울”,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 등 직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달래꽃의 강인한 생명력, 아름다움, 소중함 등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각 연의 마지막 구절인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는 유사한 구조와 어미를 반복하며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시 전체에 통일성과 리듬감을 부여한다.

③ (가)에는 감탄형 어미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감탄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1연의 마지막 구절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는 달래꽃의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감탄을, 2연의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는 달래꽃의 위대함에 대한 감탄을, 3연의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는 사랑의 감격에 벅찬 감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달래꽃의 가치를

부각하고 화자의 고조된 심정을 드러낸다. 1연에서는 달래꽃의 조출한 아름다움과 영속성을, 2연에서는 달래꽃의 역사와 위대한 힘을, 3연에서는 달래꽃과 함께하는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며 의미를 점차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층적 구조는 달래꽃의 가치를 점차 고양시키고, 화자의 격앙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3. 정답 ②

(나)는 ‘여러 산봉우리’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하(下)’, ‘지리산 중(中)’, ‘섬진강 섬진강’, ‘세석 철쭉꽃밭’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이러한 공간 이동은 뻘쭙새 울음의 확산과 수렴, 그리고 슬픔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여러 마리 뻘쭙새 울음으로 들리던 것이 지리산 봉우리에서 울려 퍼지고, 섬진강을 거쳐 마지막에는 철쭉꽃밭을 태우는 강렬한 슬픔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공간 이동에 따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① (나)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봄 하룻날”), 시간의 흐름 자체가 시상 전개 중심축은 아니다. 시의 초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내면 변화보다는 뻘쭙새 울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 맞춰져 있다.

③ (나)는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거 회상 또한 두드러지지 않는다.

④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나)에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의 갈등이나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4. 정답 ④

(나)의 뻘쭙새 울음은 슬픔과 서러움의 정서를 강하게 환기하고, 감정을 정확히는 긍정적 힘보다는 슬픔의 심화와 잔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뻘쭙새 울음이 철쭉꽃밭을 태우는 붉은 빛깔로 남는다는 점은 슬픔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으로 지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뻘쭙새 울음이 긍정적 힘을 지향한다는 해석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제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나)에서 뻘쭙새 울음은 시종일관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과 같은 구절에서 뻘쭙새 울음이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뻘쭙새 울음은 시 전체에 걸쳐 슬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의 뻘쭙새 울음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소멸되는 존재의 비애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다. 뻘쭙새 울음은 산봉우리를 넘나들며 확산되지만, 결국 섬진강과 철쭉꽃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소멸과 변화의 순환적 질서를 보여준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뻘쭙새 울음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의 유한함과 슬픔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나)의 뻘쭙새 울음은 화자의 내면적 고뇌를 외부 세계인 자연 현상에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뻘쭙새 울음의 슬픔, 산봉우리를 넘나드는 울림,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흐름, 철쭉꽃밭을 태우는 마지막 빛깔 등은 모두 화자의 내면적 고뇌와 슬픔의 다양한 양상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연물을 통해 추상적인 내면 감정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다.

⑤ (나)에서 뻘쭙새 울음은 여러 봉우리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슬픔의 확산과 파급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와 같은 구절은 뻘쭙새 울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이는 슬픔의 감정이 널리 퍼져나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뻘쭙새 울음의 역동성은 슬픔의 감정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5. 정답 ④

(가)의 화자는 바윗돌처럼 뚱뚱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의 ‘긴긴 역사’와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찬양한다. 이는 달래꽃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틔우고 꽃을 피워 내는 모습에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즉 삶의 숭고한 의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 또한 그러한 의지를 얻고자 함을 의미한다. ‘푸른 수의’를 벗고 싶은 마음 역시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달

래꽃처럼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① (가)에서 달래꽃은 덧없는 삶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초월적 깨달음을 제시하는 존재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달래꽃은 끈질긴 생명력과 역사, 사랑의 감정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매개체이다.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초월적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② (가)에서 달래꽃은 화자에게 순간적인 위안과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달래꽃의 '위대한 역사와 힘'에 주목하며, 단순한 위안을 넘어선 삶의 근원적인 힘과 의지를 얻고자 한다. 달래꽃은 덧없이 스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길이 멀하지 않을' 존재로 인식되며, 순간적인 감정 해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③ (가)에서 화자는 달래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만,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달래꽃의 '멀하지 않을' 생명력과 역사에 감탄하며, 그 가치를 내면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아름다움의 소유보다는 달래꽃의 숭고한 생명력과 의지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⑤ (가)에서 달래꽃은 햇볕, 바람, 벌나비 등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자연과의 조화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다. 화자는 달래꽃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기보다는,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와 숭고한 생명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자연과의 조화는 달래꽃의 속성을 설명하는 배경일 뿐, 주된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정답 ②

(나)에서 섬진강의 힘찬 물줄기는 뺨꼭새 울음의 슬픔을 극복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섬진강은 오히려 뺨꼭새 울음이 도달하는 종착점이자, 슬픔이 강렬한 이미지로 응축되는 공간이다. 힘찬 물줄기는 슬픔의 격렬함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며, 슬픔의 극복보다는 심화된 슬픔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슬픔 극복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① (나)는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등 뺨꼭새 울음의 반복과 확산을 통

해 애절한 정서를 점층적으로 심화시킨다. 뺨꼭새 울음이 여러 산봉우리를 거쳐 섬진강, 철쭉꽃밭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슬픔이 확장되고 응축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반복과 확산은 슬픔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시적 장치이다.

③ (나)의 마지막 연에서 뺨꼭새 울음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은 강렬한 슬픔의 여운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붉게 타오르는 철쭉꽃밭은 슬픔의 강렬함과 지속성을 상징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뺨꼭새 울음은 소멸되지 않고 강렬한 빛깔로 남아 슬픔의 여운을 지속시킨다.

④ (나)는 지리산 봉우리에서 섬진강, 세석 철쭉꽃밭으로 이어지는 공간 이동을 통해 뺨꼭새 울음의 변화와 슬픔의 변주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뺨꼭새 울음은 확산과 수렴, 응축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슬픔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낸다. 공간 이동은 슬픔의 정서가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상 전개 방식이다.

⑤ (나)는 한 마리 뺨꼭새 울음이 여러 마리 뺨꼭새 울음으로 확산되었다가, 마지막 연에서 철쭉꽃밭을 태우는 이미지로 응축되며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뺨꼭새 울음의 생성과 소멸, 확산과 수렴이라는 순환적 질서를 암시하며, 삶의 유한성과 변화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뺨꼭새 울음의 변화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 또한 유한하며 변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8. 정답 ③

2연은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3연은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묘사하여 감각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2연에서는 '뺨꼭새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와 같이 뺨꼭새 울음소리가 봉우리를 넘나드는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묘사하여 울림의 확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반면 3연에서는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과 같이 산봉우리들이 울음을 멈추고 강이 열리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묘사하여 울음의 소멸과 침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미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① 2연과 3연 모두 '지리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2연은 '뒷산 봉우리'를, 3연은 '연연한 산봉우리', '강'을 언급하며 공간을 구체화하지만, 공간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2연과 3연 모두 빼꼭새 울음의 확산과 소멸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연은 빼꼭새 울음이 봉우리를 넘나들며 확산되는 동시적인 상황을, 3연은 봉우리들의 울음이 멎고 강이 열리는 결과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④ 2연은 '받아넘기고'라는 동적인 표현을 통해 빼꼭새 울음이 봉우리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3연은 산봉우리가 '울고 나서' '추스름 끝'에 강이 열리는 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3연은 오히려 울음이 멎은 후의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강의 열림)을 암시하며 정적 이미지보다는 변화와 전환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역동성과 정적인 이미지를 대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2연은 빼꼭새 울음이 봉우리를 넘나들며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3연은 빼꼭새 울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공간적 확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울음이 멎고 침묵이 찾아오는 변화 양상을 제시한다. 2연과 3연 모두 공간적 확장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정답 ②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가)는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달래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나)는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빼꼭새 울음과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① (나)는 빼꼭새 울음을 통해 슬픔과 서러움이라는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삶의 애환보다는 긍정적 의지를 강조하므로, 공통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적인 시어를 뚜렷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 비판적 태도 또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는 청각적 심상인 빼꼭새 울음을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각적 심상(산, 강, 꽃 등)과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청각적 심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10. 정답 ④

[A]는 달래꽃의 '긴긴 역사'와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바윗돌처럼空空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의 모습에서 화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느끼며,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찬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찬양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을 넘어, 달래꽃이 지닌 숭고한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① [A]에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경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달래꽃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어떠한 의구심이나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하지 않는다. 달래꽃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맹목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분명한 근거와 깊은 감동에 기반한 신뢰와 존경에 가깝다.

② [A]에서 달래꽃의 아름다움은 '덧없음'과는 거리가 멀다. 화자는 달래꽃의 '긴긴 역사'와 '길이 멀하지 않을' 영원성을 강조하며, 달래꽃의 아름다움이 순간적이고 소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한다. 연민의 정서보다는 경탄과 찬양이 주된 태도이며,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나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A]는 과거에 대한 성찰보다는 달래꽃의 현재적 가치와 영원한 생명력에 집중하고 있다. '긴긴 역사'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는 과거에 대한 회고나 반성이 아니라 달래꽃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배경으로 제시된다. 자조적인 한탄 역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달래꽃을 통해 삶의 의지를 고취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⑤ [A]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체념적 절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화자는 달래꽃의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오히려 희망과 의지를 고취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다. 절망적인 감정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숭고함과 찬양의 태도가 주를 이루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암시한다.

11. 정답 ②

[B]에서 ‘나’와 ‘너’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함께 자연과 교감하고 무한한 마음과 소통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라는 구절은 ‘나’와 ‘너’가 미래를 함께 걸어갈 동반자임을 명확히 드러내며,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연대임을 강조한다.

① [B]에서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경쟁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 전체에서 ‘너’는 화자의 사랑과 긍정적인 감정을 집중적으로 받는 대상으로 묘사되며, 갈등이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는 제시되지 않는다. 경쟁자 관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애정과 헌신의 관계가 주를 이룬다.

③ [B]에서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은 깊은 애정과 사랑이지, 소유욕이나 집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꼬옥 칠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같은 표현에서 애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소유욕이라기보다는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번뇌나 갈등 또한 나타나지 않으며,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이 주를 이룬다.

④ [B]에서 ‘너’는 ‘나’의 동경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다. 화자는 ‘너’의 ‘뜨거운 심장’, ‘아름다운 모든 것’, ‘눈망울’, ‘예쁘디예쁜 손’, ‘고운 청춘’ 등 긍정적인 속성에 감탄하며 칭찬하지만, 질투나 선망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선망의 존재라기보다는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된다.

⑤ [B]에서 ‘너’는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이다. 화자는 ‘너’의 존재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고독을 심화시키는 방관자와는 거리가 멀다.